

축구, 중동 강호 사우디와 예선 격돌...우승 고비는 8강



이광종 한국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21일 조편성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16강 진출은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사우디·라오스와 한 조

여자는 태국·인도·몰디브와 A조 편성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사우디아라비아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21일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추첨에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말레이시아, 라오스는 한국보다 객관적으로 한 수 아래의 평가를 받는 약체다. 한국은 조 2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출전권을 사실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광종 감독도 "무난하다"고 조 편성 결과를 총평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보다 위세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경계대상이다. 힘있고 유연한 축구를 구사하는 중동 국가가 전통적으로 한국에 난적으로 통했다. 다른 조

의 편성과 토너먼트 대진을 볼 때 A조 1위를 둘러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격전이 예고됐다. 한국은 9월14일 오후 5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와 1차전을 치르고 17일 밤 8시 안산 와스타디움으로 장소를 옮겨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는다. 마지막 3차전은 21일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라오스전이다. 16강전은 B조 1위 또는 2위와 치르게 되는데 B조에는 우즈베키스탄, 홍콩,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이 편성됐다. B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유력한 1위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전력을 최근 들어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우즈베키스탄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한국, 이란과 마지막 경기까지 경쟁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이광종 감독도 이번 대회에서 기피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우즈베키스탄을 지목했다. 현재 판도를 볼 때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조별리그 전승을 거두는 게 우즈베키스탄을 피해 순항할 상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2차전은 그런 맥락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종 감독은 "강호 중 한 나라는 같은 조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남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잘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8강에서는 C조, D조에 편성된 강호인 일본,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등과 대결할 수 있다. 최고의 난적으로 꼽히는 이라크(11조)이나 같은 민족이라서 특수관계인 북한(12조)은 4강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최고의 '죽음의 조'로는 일본, 쿠웨이트, 이라크, 네덜이 속한 D조가 꼽히고 있다. 앞서 열린 여자축구 조 편성에서는 우리나라가 태국, 인도, 몰디브와 A조로 편성됐다. 북한은 C조에서 베트남, 홍콩과 경쟁한다. /연합뉴스

인천 아시안경기대회 축구 조 편성 결과

Table showing football tournament groupings for men's and women's teams. Men's groups A-D include teams like Korea, Saudi Arabia, Laos, Malaysia, etc. Women's groups A-C include teams like Korea, Thailand, India, etc.

이광종 감독 "조편성 무난...16강 어렵지 않다"

이광종 한국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21일 조편성 결과를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이 감독은 이날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조 추첨식 행사를 마친 뒤 "피하고 싶은 팀을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때 중동의 맹주이던 사우디아라비아만 까다로운 편 말레이시아, 라오스는 한 수 아래로 평가된다. 그 때문에 조추첨 식에서는 한국이 조 2위가

주 주어지는 16강 출전권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감독은 "일본,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북한 등이 피하고 싶은 국가였다. 추첨에서 바라던 대로 무난한 결과가 나왔다"며 "까다로운 국가가 하나 정도는 함께 편성될 것으로 봤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 감독은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중상위권, 라오스는 아시아 중위권 전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했다. 그는 "말레

시아, 라오스도 남은 기간에 잘 분석해 이기겠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대표팀은 다음 달 1일부터 담금질에 들어가 같은 달 14일 문학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와의 A조 1차전과 함께 대회를 시작한다. 운데어 한국 여자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한국은 태국, 인도, 몰디브와 함께 A조에 편성돼 다음 달 14일부터 차례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공인구 인천아시안게임 구기종목에서 사용하게 될 공인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축구·배구·핸드볼·농구 공인구

광주FC, 잔물수비로 달구벌 접수 '호시탐탐'
K리그 챌린지 23라운드
내일 대구 원정경기
베테랑 마철준에 기대
'빛고를 전사'들이 든든해진 방패로 반전을 노린다.
광주 FC가 오는 23일 오후 7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K리그 챌린지 23라운드 대구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22라운드 충주 험멜과의 홈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6위(7승8무7패·승점 29)에 머물고 있다. 반면 대구는 4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며 8승6무8패(승점 30)로 리그 4위로 올라섰다.
매 경기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대구와의 일전을 시작으로 강원, 안양, 고양, 대전과 어렵고 중요한 연전을 펼쳐야 한다.
근소한 승점 차 안에서 승격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과의 대결인 만큼 승패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2승2무를 기록했다. 2무가 어렵기는 하지만 착실하게 승점을 쌓아가고 있다. 광주 무패행진에는 '잔물 수비'가 있다. 최근 4경기에서 광주는 단 1골만을 허용하면서 상대의 발을 묶었다.
베테랑 마철준의 수비 리딩과 골키퍼 제중현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촘촘한 수비 조직력이 갖춰졌다.
특히 마철준이 수비 중심을 잡아주면서 시즌 내내 약점으로 지적됐던 뒷심이

'챔스골맛' 손흥민 '꿀벌사냥' 나선다
분데스리가 개막전 도르트문트 원정 출격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향한 시동을 건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레버쿠젠은 24일 오전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정규리그 1라운드 원정에서 맞붙는다.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자동원(도르트문트),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김진수(호펜하임) 등도 세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도르트문트 킬러' 손흥민 득점 기대
'상한가'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월드컵 당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두 차례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4골을 쏟아냈다. 또 지난 시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나서도 15라운드에서 결승골을 꽂으며 '도르트문트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알레마니아 발탈게스하임과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64강)에서 시즌 1호골을 기록한 데 이어 20일 코펜하겐(덴마크)과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2 승리를 결정하는 결승골을 작성하면서 '매서운 발끝'을 과시하고 있다.
개막을 앞두고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과 함께 리그 1호 골까지 노린다. 이를 바탕으로 2012-2013 시즌(12골), 2013-2014시즌(10골)에 이어



베테랑 마철준(왼쪽에서 세 번째)으로 탄탄한 수비 벽을 구축한 광주 FC가 23일 원정길에 올라 난적 대구 FC를 상대로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다. <광주FC 제공>

살아났다.
지난 충주전 MOM(Man of the Match)로 선정됐던 마철준은 프로축구 연맹이 발표한 23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마철준은 "정확한 위치 선정과 커버 플레이로 팀의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든든해진 방패, 승리를 위해서는 창의 매서움이 필요하다.
김호남과 박현이 측면 공격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골로 연결시

키는 못하고 있다. 대구전을 위해 화력 강화에 집중한 광주가 얼마나 매섭게 골문을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게 된다.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구는 지난 22라운드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으며 3경기 무승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광주가 경계해야 할 선수는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이다. 탄탄한 체력 조건을 바탕으로 빠른 드리블 돌파와 강력한 슈

팅을 날리고 있는 조나탄은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물오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흔들리는 수비 조직력이 문제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베테랑 최원권이 합류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최근 4경기에서 7실점을 했다.
승격의 갈림길에 선 광주의 운명을 가리게 될 연전의 시작.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광주가 대구전 승리를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 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자릿수 득점에도 도전한다.
◇구자철·박주호·김진수 '주전 파란불'
'자동원·홍정호 '부상으로 우울'=마인츠에서 뛰는 구자철과 박주호는 오가자키 신지와 더불어 '극동아시아 3인방'으로 불리며 주전 자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 마인츠는 24일 오후 10시30분 파더보른과 원정으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구자철은 유로파리그 3차 예선 두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왼쪽 풀백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보직 변경에 나선 박주호의 입지도 탄탄하다. 최근 연습경기에서 타박상을 당했지만 개막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 시즌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왼쪽 풀백 김진수도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1일 AZ알카르(네덜란드)와 연습경기를 통해 호펜하임 데뷔전을 치른 김진수는 10일 제노바(이탈리아)와의 연습경기 선발에 이어, 18일 팔로마와의 포칼 1라운드에서는 첫 풀타임을 소화하며 개막전 '베스트 11' 자리를 확실하게 닦았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의 중앙 수비수 홍정호는 왼쪽 발등 부상 여파가 이어지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르트문트의 공격수 자동원도 훈련 도중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하며 손흥민과의 '태극전사 맞대결'이 무산됐다. /연합뉴스